

오늘의 가장 큰 선물은  
내일이 아닐까요  
한 해의 끝자락,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남구 700여 공무원들은 2019년에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Welcome 2019

첫 해 보러 오세요

○일시 : 2019년 1월 1일 (월)

오전 7시~8시

※ 일출시간 07:31

○장소 :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

—본행사 : 음악방송, 대북축하공연, 사회자 행사안내, 새해소망풍선날리기 등

—부대행사 : 새해소원 연날리기 (부산민속연보존회), 주민다과 나눔

※ 이기대초소, 이기대 큰고개점터, 오륙도 스카이워크 입구에서 주민 여러분에게 따뜻한 다과를 제공합니다.

## 노면전차 ‘오륙도선’ 유치 본격화

〈경성·부경대~오륙도SK뷰아파트 5.4km〉

### 무가선 저상트램 시범구간 정부공모사업 제출… 주민 유치 추진위 출범

#### 내년 1월 공모 결과 발표

저비용 신교통수단인 트램(TRAM·노면전차)을 신설해 남구의 교통속원을 해소하는 ‘남구발 교통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시가 트램 정부 공모사업에 오륙도선(용호선)을 선정, 제안하고 남구 주민으로 구성된 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트램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국

토부 위탁 연구기관)에서 수행중인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 신청에 오륙도선(용호선)을 선정해 제출했다. 시는 총 8개 노선을 검토한 결과, 오륙도선(용호선)이 차량기지 부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비가 투입되지 않고 공모기준에도 적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원래 오륙도선은 경성대·부경대역~오륙도SK뷰아파트 5.4km 구간인데, 이번에 공모신청에는 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 여귀삼거리 1.9km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제안해

제출했다. 사업비는 470억원(국비 110억원, 시비 360억원) 정도 예상된다. 공모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된다. 3.5km 잔여구간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실증노선 공모사업에 오륙도선이 선정되면 이는 국내 최초의 무가선 저상트램인 동시에 전세계 무가선 저상트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가선(wireless) 저상트램은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공모 신청서 제출에 맞춰 지난 14일 환

경관리공단 남부사업소에서 도시철도 오륙도선 트램 유치 촉구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대연동과 용호동 주민들로 구성된 트램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박두준)는 “재개발 등으로 용호동에 인구 9만 명이 밀집해 있는데 도로망은 인구 유입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트램 유치를 호소했다. 추진위는 주민 4만5000여명에게서 받은 트램 도입 촉구 서명서를 부산시와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륙도선 트램 유치 촉구 발대식이 지난 14일 용호동 환경관리공단 남부사업소 광장에서 열렸다.



트램 오륙도선 예상도(경성대·부경대역).

## 남구, 청림도 평가 전국 최고 등급 상승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지난해 대비 3등급 수직 상승

남구가 2018년 공공기관 청림도 평가에서 2017년 대비 3등급이 올라 종합청림도 2등급을 달성했다. 3등급 수직 상승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는 지난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남구가 민선7기에 들어 청림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공공기관 청림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2개 전문기관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경험이 있는 주민, 소속직원 대상으로 별인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했다. 특히 종합청림도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림도와 직원 스스로 매기는 내부청림도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정책고객평가를 합산해 도출한다.

남구는 올해 청림도 향상을 위해 △고객감동 청렴해피콜 △청렴 아카데미 교육 △청렴유지제 체험 △전직원 청렴 서약 △명예 감사관제 운영 △청렴의날 운영 △청렴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쳤다.

남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공직자는 작은 이익이라도 권법을 통해 취해서는 안되며, 작년 부산시 13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구정장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607-4055

#### ■2018년 부산 기초자치단체 종합청림도

1등급	-
2등급	남구, 동구, 동래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
3등급	금정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4등급	부산진구, 기장군
5등급	강서구

#### 어린이집·유치원

#### 10m 이내 금연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내부 공간만 법정금연구역이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남구보건소는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170여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금연구역 홍보에 나섰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행정기구 개편 <3면>

부산 장난감박물관 개관 <4면>

## 따뜻한 버스정류장

### 관내 10곳 바람막이·발열의자 설치

남구가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잠시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와 발열의자를 설치했다.

바람막이는 기존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시설에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투명 비닐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미닫이 문을 닫아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투명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벤치형 발열의자도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발열의자는 버스이용 시간대에 가동되며 특히 받은 이중안전 세라믹 탄소 먼상발열체로 화상의 염려 없이 온기를 전달할 수 있다. 벤치 형태로 의관에는 남구의 대표 명소가 디자인되었



다. 바람막이와 발열의자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앞 △용당동 새마을금고 건너편 △감만1동 행복복지센터 건너편 △우암동 자유1차 아파트 앞 △문현교차로, 대연교개 등 남구 내 10곳의 버스정류장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607-4562

## 1월 1일부터 남부면허시험장 주차장 무료 개방

### 52면 공공자원 개방·공유 전국 첫 사례… 용호동 주차난 숨통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주차장이 내년 1월1일부터 평일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무료 개방된다. 공공자원의 개방과 공유 차원에서 이뤄진 전국 첫 사례로 용호동 일대의 민선 주차난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남구와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19일 남구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관간 협약을 체결했다.

무료 개방되는 공간은 면허시험장 입구 민원주차장 52면으로 남구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진입로 정비와 CCTV 및 번호인식차단기, 출입방지펜스 설치 공사를 사

실상 마무리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일·공휴일은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남구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용호동 주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민선7기 출범 직후 부지 소유자인 부산지방경찰청과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고 이들 기관이 남구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남부면허시험장 주차장 개방은 공공자원을 주민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모집

###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1월 8일까지 이메일 접수

부산남구신문이 지역의 소식을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는 명예기자라는 이름의 ‘이야기꾼’을 찾습니다. 명예기자는 화려한 달필가나 문필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초등학교부터 어른 신까지 누구나 자격이 됩니다.

△지원 자격 : 남구에 살거나 일하는 곳인 남구인 지역주민 누구나

△모집 인원 : 〇〇명

△접수 기한 : 12월 27일~2019년 1월 8일

△접수 방법 : 간단한 자기소개와 약력을 자유롭게 적어 남구청 홍보팀(공보팀)

방문 혹은 이메일(1225honey@korea.kr) 접수

\* 직접 작성해 부산남구신문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 지급

△문의 : 607-4075

부산남구신문이 앞으로 매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  
2019년 1월호는 2월 1일 인쇄·배부됩니다.